

# 중국 내 하가점하층문화 연구 동향과 문제점

— 연구사 검토를 중심으로 —

박진호\*

## 〈차 례〉

1. 머리말
2. 하가점하층문화의 명명(命名)과 유적조사 현황
3. 연구사 검토
4. 하가점하층문화 연구의 문제점
5. 맺음말

## 【국문초록】

1960년 하가점하층문화가 이름 지어진 이래로, 중국 내의 하가점하층문화 연구는 문화의 연대, 분포범위 연구와 더불어, 사회 형태 및 국가기원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하가점하층문화가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난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그 지위는 중원의 하왕조를 둘러싼 방국(方國)에 해당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구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번 글에서는 특히 연구 대상의 편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간의 하가점하층문화 연구는 내몽고 적봉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로아호산 이서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하가점하층문화 유적들을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취락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유적 간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주제어] 요서지역, 하가점하층문화, 취락고고학

\* 안양대학교 강사

## 1. 머리말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견된 조기(早期) 청동기시대 문화이다. 그 연대는 일반적으로 BC2000~BC140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원지역의 하(夏) 및 조상(早商)시기와 맞물린다. 하가점하층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돌이나 흙벽돌을 사용하여 만든 담장과 산 정상부에 자리 잡은 비교적 큰 규모의 석성이 보편적으로 발견되며, 내몽고 중남부 및 중원 지역에서 유행하던 렉(鬲)<sup>1)</sup>과 언(甗) 등의 삼족기가 토기 조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동일 지역에서 발전했던 이전 시기의 신석기시대 문화에서 환호를 두른 취락과 평저의 통형관(筒形罐) 및 기타 평저 토기가 유행하였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중국학계에서도 중원지역의 하상(夏商)문화와 연관지어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형성에 주도적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sup>2)</sup> 게다가 요서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존(遺存)들은 요동 지역 및 한반도 지역과도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에 일어난 문화적 변화들은 국내 학계에서도 주민집단 및 정치체의 이동, 지역 간 문화교류 등의 연구와 관련지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하가점하층문화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해보고, 현재의 연구 흐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그 연구 과정을 문화의 발견과 명명, 분기 및 연대 문제, 분포범위, 취락 및 사회 형태 연구 등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겠다. 나아가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이후 하가점하층문화 연구가 지향해야 할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본문에 사용된 토기의 명칭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학계에서 사용되는 토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인명을 제외한 지명 및 유적명 또한 한자음 그대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2) 朱永剛,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東北與北方青銅時代』, 文物出版社, 2016, 1~20쪽.

## 2. 하가점하층문화의 명명(命名)과 유적조사 현황

### 1) 발견과 명명

요서지역(遼西地域)의 선사문화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로, 1930년대 중국학자 량쓰용[梁思永]이 해당 지역을 조사하기도 하였지만,<sup>3)</sup> 당시 중국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중국학자들보다 일본 학자들에 의한 조사 및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다.

1928년 하마다 고사쿠[濱田 耕作]는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첼리목맹(喆里木盟)<sup>4)</sup> 나만기(奈曼旗) 소고륜(小庫倫) 지역에서 북부에 승문(繩文)이 새겨진 관형정(罐形鼎)과 무문의 마광 통복력(筒腹鬲) 등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토기들을 발견하였다.<sup>5)</sup> 하지만 당시에는 유물의 연대나 속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다. 1935년 하마다 고사쿠와 미즈노 세이이치[水野 誠一] 등 일본의 동아고고학회(東亞考古學會) 구성원들은 내몽고 적봉(赤峰)지역의 영금하(英金河) 연안에서 조사를 하였고, 홍산후(紅山後)유적을 발굴하였다. 이 과정에서 존형력(尊形鬲), 언의 허리(甗腰) 그리고 승문이 새겨진 관(罐) 등 하가점하층문화 유물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물들을 다른 시기의 유존과 한데 묶어 “적봉 제2기 문화”라고 칭하였으며, 동시에 채집된 명도전을 근거로 그 연대를 중원지역의 진한(秦漢)시기에 해당한다고 추측하였다.<sup>6)</sup>

1940년대가 되면서 중국학자들의 현장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43년 중국학자 통쭈천(佟柱臣)은 내몽고 적봉시의 동팔가(東八家)유적을 조사하고, 지표에 드러난 주거지에 대해 실측을 진행하였다. 그 후 유적 부근

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考古學專刊—梁思永考古論文集』, 科學出版社, 1959.

4) 현재의 내몽고자치구 통료시(通遼市)

5) 濱田耕作, 『貔子窩(東方考古學叢刊第一冊)』, 東亞考古學會, 1929; 郭大順, 張星德, 『東北文化與幽燕文明』, 江蘇教育出版社, 2004, 293쪽.

6) 濱田耕作, 水野清一, 『赤峰紅山後—熱河省赤峰紅山後先史遺址(東方考古學叢刊第六冊)』, 1938, 東亞考古學會; 郭大順, 張星德, 앞의 책, 293쪽.

에서 몇 차례 지표조사를 다시 진행하였고, 유적 내 전국(戰國)시대의 전형적인 회도(灰陶)가 보이지 않는 점, 유적이 위치한 지대가 일반적인 전국~한(漢) 시기의 성지보다 매우 높은 점 등을 근거로 동팔가유적을 신석기시대 만기(晩期)의 문화 유존이라고 생각하게 된다.<sup>7)</sup>

1950년대 초, 요녕성 박물관은 능원현(凌源縣) 마창구(馬廠溝) 소전산자(小轉山子) 유적에서 상주(商周)시기 청동기 저장 구덩이[窖藏]를 발굴하였는데, 그 중 한 기의 저장 구덩이가 하가점하층문화 유구를 파괴한 것이 발견되어, 해당 유구가 상주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존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이 유구가 용산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sup>8)</sup>

1956년, 페이원쑹[裴文中]과 뤼준어[呂遵諤]는 홍산후 유적에서 조사를 한 후, 과거 일본고고학자들이 주장한 “적봉 제2기 문화”라는 개념을 실제로 문화 성질과 면모가 다른 두 시기의 유존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9)</sup>

1960년 리우관민[劉觀民]과 쉬광지[徐光冀]는 내몽고 적봉시 영금하 유역의 하가점유적을 발굴하였는데, 이 유적의 발굴로 비로소 하가점하층문화가 이름 지어졌다. 발굴자들은 해당 유적의 상층과 하층의 문화 차이에 근거해 상층을 하가점상층문화로, 하층을 하가점하층문화로 이름 지었다. 또한 하가점하층문화가 은상(殷商)문화와 연대가 비슷할 뿐 아니라, 상호간에 비교적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10)</sup>

위의 과정에서 진행된 일본학자들의 조사와 연구는 발견된 유존의 성격에 대해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학자들의 조사와 연구는 해당 유존들의 연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보는 노력을 했으며, 처음으로 요서지역 청동기시대의 존재를 드러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7) 修柱臣, 『赤峰東八家石城址勘查記』, 『考古通訊』 1957, 제6기, 15~22쪽.

8) 王增新, 『凌源青銅器群出土地點發現新石器時代遺址』, 『文物參考資料』, 1957, 제3기, 80쪽; 郭大順, 張星德, 앞의 책, 293쪽.

9) 呂遵諤, 『內蒙古赤峰紅山後考古調查報告』, 『考古』, 1958, 제3기, 25~40쪽.

10)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內蒙古赤峰藥王廟, 夏家店遺址試掘簡報』, 『考古』, 1961, 제2기, 111~144쪽.

## 2) 유적 조사 현황

1960년 하가점하층문화의 유구와 유물에 대한 특성이 확인되고 다른 시대의 문화와 구별되는 독립적 문화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하가점하층문화에 대한 학계의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후 내몽고 적봉지역의 영금하와 그 지류를 중심으로 관련 유구와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는데, 특히 아래에서 소개할 네 차례의 지표조사는 하가점하층문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함과 동시에 학자들의 연구 또한 촉진시키게 되었다.

1964년, 쉬광지는 적봉시 서부의 영금하와 음하(陰河) 연안을 따라 지표조사를 진행하였고, 하가점하층문화 유적 43곳을 발견하였다.<sup>11)</sup>

1994년, 북경대학의 이스라엘 대학원생이었던 Gideon Shelach과 적봉사전북방민족문화연구소(赤峰師專北方民族文化研究所), 적봉북방문화국제연구중심(赤峰北方文化國際研究中心)이 합동으로 적봉시 송산구 서부의 음하 중하류 지역에서 지표조사를 진행하였고, 60여 곳의 하가점하층문화 석성지를 발견하였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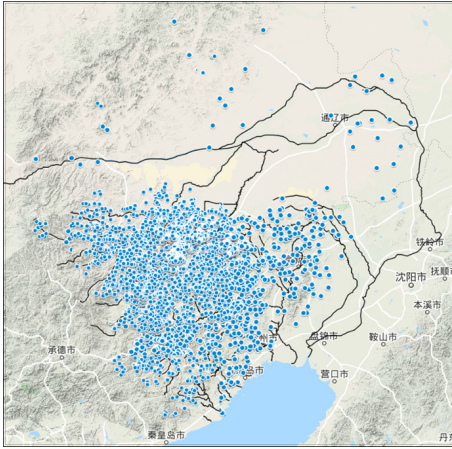
중국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中國社會科學院薺鼓研究所), 내몽고문물고고연구소(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길림대학변강고고연구중심(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이 합동으로 구성한 적봉고고대(赤峰考古隊)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내몽고 적봉시 서남부의 반지전하(半支箭河) 중류, 회갑산하(盔甲山河) 하류, 청수하(清水河) 중류 지역에서 지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선진(先秦) 시기의 유적 220곳이 발견되었고, 그 중 하가점하층문화의 문화층을 포함하는 유적은 150여 곳이었다.<sup>13)</sup>

1999년부터, 쟡쥬페이(賡聚佩)가 이끄는 중미연합고고대(中美聯合考古隊)는 적봉

11) 徐光冀, 『赤峰英金河、陰河流域的石城遺址』, 『中國考古學研究——夏鼐先生考古五十周年紀念論文集』, 文物出版社, 1986, 82~93쪽.

12) 王惠德等, 『陰河中下游石城的調查與研究』, 『昭烏達蒙古族師專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1998, 제4기, 15~61쪽.

13) 國家文物局合組“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赤峰考古隊 編著, 『半支箭河中遊先秦時期遺址』, 科學出版社, 2002.



[그림 1] 하가점하층문화 유적 분포도

시 서쪽의 영금하 및 그 지류인 음하, 반지전하 하류에서 전보다 세밀한 지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1000여 곳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하가점하층문화의 문화층을 포함하는 유적은 379곳이었다.<sup>14)</sup>

이상의 지표조사들은 학자들에게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이 적봉 서부지역을 비롯한 그 주변지역에 매우 밀집해서

분포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켰으며, 하가점하층문화 연구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쉬광지의 지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적봉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오한기, 녕성현 등지의 주요 유적에 대해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요녕성 북포시에서도 풍하유적이 발굴되면서 노로아호산(努魯兒虎山)<sup>15)</sup> 이서지역의 적봉지역 뿐만 아니라 그 동쪽에 위치한 유적에 대해서도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하가점하층문화가 분포한 전체 범위 내에서 농지 개간, 도로 건설 등의 개발 사업들이 늘어났고, 관련 유적에 대한 발굴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위의 지표조사 자료들과 『中國考古學年鑒』, 『中國文物地圖集·內蒙古自治區分冊』,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은 주로 내몽고 적봉, 통료(通遼) 및 요녕성 조양(朝陽), 부신(阜新), 호로도(胡蘆島), 금주(錦州) 등지에 분포하며, 지금까지 정식적인 고고학 조사를 거쳐 발견된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은 5262곳이다(그림 1). 그 중

14) 赤峰中美聯合考古研究項目, 『內蒙古東部(赤峰)區域考古調查階段性報告』, 科學出版社, 2003.

15) 내몽고 적봉 오한기 지역과 요녕성 조양시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산맥이다.

정식으로 시굴 혹은 발굴된 유적은 모두 53곳으로 상세한 유적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현재까지 시·발굴된 하가점하층문화 유적 목록

순서	유적	위치	조사년도	보고형식	조사기관
1	하가점(夏家店)	적봉시 (赤峰市)	1960	시굴 간보 <sup>16)</sup>	中國科學院考古所 內蒙古工作隊
2	약왕묘(藥王廟)	적봉시	1960	시굴 간보	中國科學院考古所 內蒙古工作隊
3	지주산(蜘蛛山)	적봉시	1963	발굴 간보	中國科學院考古所 內蒙古工作隊
4	동산저(東山咀)	적봉시	1973	시굴 간보	遼寧省博物館 昭烏達盟文物工作站 赤峰縣文化館
5	점장대(黑將台)	적봉시	1990	고고학 연감 (考古學年鑒)	中國社科院考古所 內蒙古工作隊
6	대남구(大南溝)	적봉시	2004	시굴 간보	烏蘭察布市博物館
7	연태산(硯台山)	적봉시	2005	발굴 간보	赤峰市博物館
8	삼좌점(三座店)	적봉시	2005~2006	발굴 간보	內蒙古文物 考古研究所
9	상기방영자 (上機房營子)	적봉시	2005~2006	정식 보고서	吉林大學 邊疆考古研究中心
10	서량(西梁)	적봉시	2005~2006	정식 보고서	吉林大學 邊疆考古研究中心
11	강가만(康家灣)	적봉시	2006	발굴 간보	吉林大學 邊疆考古研究中心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2	이도정자 (二道井子)	적봉시	2009~2010	발굴 간보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3	탑산남(塔山南)	오한기 (敖漢旗)	1974	시굴 간보	遼寧省博物館 昭烏達盟文物工作站 敖漢旗文化館

16) 중국에서 간보(簡報)는 한국의 약보고서를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4	대전자(大甸子)	오한기	1974~1977 1983	정식 보고서	中國社科院考古所 內蒙古工作隊
15	범장자(範仗子)	오한기	1982	발굴 간보	內蒙古文物工作隊
16	홍룡구 제3지점 (興隆溝第三地點)	오한기	2001~2003	발굴 간보	中國社科院考古所 內蒙古工作隊
17	소유수림자 (小榆樹林子)	녕성현 (寧城縣)	1960	시굴 간보	內蒙古文物工作隊
18	남산근(南山根)	녕성현	1961	발굴 간보	中國科學院考古所 內蒙古工作隊
19	삼좌점(三座店)	녕성현	1987~1988	고고학 연감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	대산전(大山前)	객라십기 (喀喇沁旗)	1996, 1998	발굴 간보	中國社科院考古所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吉林大學考古系
21	소동구(小東溝)	나만기 (奈曼旗)	2005	발굴 간보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2	호금고(胡金稿)	고륜기 (庫倫旗)	1998	발굴 간보	哲裏木盟博物館
23	풍하(豐下)	북표시 (北票市)	1972	발굴 간보	遼寧省文物幹部培訓班
24	강가둔(康家屯)	북표시	1997~2000	발굴 간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5	서대천(西大川)	북표시	1997~1998	고고학 연감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6	개자정(蓋子頂)	북표시	1999	고고학 연감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吉林大學考古學系
27	열전강熱電廠	조양시 (朝陽市)	1986~1987	고고학 연감	遼寧大學曆史系文博 幹部專修科考古實習隊
28	북태자(北台子)	조양시 朝陽市	1999	고고학 연감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朝陽縣文物管理所
29	라과지(羅鍋地)	조양시 朝陽市	2000	발굴 간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朝陽市博物館 朝陽縣文物管理所
30	상하수(上河首)	조양시 朝陽市	2005	고고학 연감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31	와룡산(臥龍山)	조양시 朝陽市	2006	고고학 연감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32	마영자(馬營子)	조양시 朝陽市	2006	고고학 연감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7) 부신몽고족자치현(阜新蒙古族自治縣)



33	소장자(蕭杖子)	릉원시 (凌源市)	1991	고고학 연감 중국 문물보 (中國文物報)	凌源縣博物館 朝陽市文物普查隊
34	우하량 제16지점 (牛河梁第16地點)	릉원시	1979 2002~2003	정식 보고서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35	객라십하동 (喀喇沁河東)	건평현 (建平縣)	1980	시굴간보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朝陽地區博物館文物組
36	수천(水泉)	건평현	1981	발굴간보	遼寧省博物館 朝陽市博物館
37	평정산(平頂山)	부신시 (阜新市)	1988~1989 1992	발굴간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吉林大學考古學系
38	대해(代海)	부신시	2009	발굴간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阜新市文物管理辦公室
39	계력화(界力花)	부신시	2009	발굴간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40	하삼가(下三家)	객좌현 (喀左縣)	2006	고고 연보 (考古年報)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41	오포지(敖包地)	부몽현17) (阜蒙縣)	2006	고고 연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42	서회동(西灰洞)	부몽현	2006	고고 연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43	동수천(東水泉)	부몽현	2006	고고 연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44	북구(北溝)	부몽현	2006	고고 연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45	서소산(西小山)	부몽현	2006	고고 연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46	선령사(仙靈寺)	홍성시 (興城市)	1984	고고학 연감	遼寧省博物館
47	마권자(馬圈子)	홍성시	1997 1999 2000	발굴간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興城市文物管理所
48	망보산(望寶山)	홍성시	1999	발굴간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49	광량(廣糧)	홍성시	1999	고고학 연감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50	대마구자남산 (大馬口子南山)	릉해시 (凌海市)	2011	고고학 연감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51	대산(台山)	릉해시 凌海市	2011~2012	고고학 연감	遼寧省文物考古研究 錦州市考古所
52	서대립자 (西大砬子)	릉해시 凌海市	2012~2013	발굴 간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中國人民大學
53	향양령(向陽嶺)	의현 (義縣)	1992	발굴 간보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표 1]을 참고하면 총 53곳의 유적 중 내몽고 적봉시에서 12곳, 오향기 4곳, 녕성현 3곳, 객라심기 1곳, 나만기 1곳, 고륜기, 1곳, 요녕성 북표시 4곳, 조양시 6곳, 룡원시 2곳, 건평현 2곳, 부신시 3곳, 객좌현 1곳, 부몽현 5곳, 흥성시 4곳, 룡해시 3곳, 의현 1곳이 시굴 또는 발굴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가점하층문화의 전체 분포범위는 노로아호산을 경계로 동·서로 나눌 수 있는데, [표 1]의 1번 하가점유적부터 21번 나만기 소동구유적까지는 대체로 노로아호산 서쪽에 위치한 유적들이며 22번 고륜기 호금고유적부터 53번 의현 향양령유적은 대체로 노로아호산 동쪽에 위치한 유적들이다.

1960년대 하가점유적과 약왕묘유적이 발견되면서 적봉지역을 비롯한 노로아호산 이서지역에서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2010년의 이도정자유적의 발굴을 끝으로 더 이상 학술발굴뿐만 아니라 구제발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1972년에 풍하유적이 발굴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조양시, 부신시 등을 비롯한 노로아호산 이동지역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발굴조사 수가 노로아호산 이서지역보다 약간 적었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오히려 이동지역의 발굴이 더 활발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3. 연구사 검토

#### 1) 분기(分期)와 연대(年代)에 관한 논의

분기와 연대는 중국 내의 어느 고고학 문화를 연구 하더라도, 가장 선행되는 연구 중 하나이다. 고고학 조사 자료가 점차 누적되면서, 하가점하층문화의 분기 및 연대 문제 또한 활발히 논의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하가점하층문화의 분기와 연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가점하층문화의 분포범위가 매우 넓고, 발견된 유적 수량도 많은데 비해, 유적의 층위관계가 명확히 조사된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이었다.

한 유적에서 층위관계가 비교적 풍부하게 드러난 사례는 1972년 발굴된

북표(北票) 풍하(豊下)유적으로,<sup>18)</sup> 발견된 5개의 퇴적층 중 4개가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에 속했다. 또한 매 퇴적층이 포함하고 있는 유물의 변화상이 명확해 하가점하층문화 분기연구의 기준이 되었다.

1980년 저우형[鄒衡]은 하가점하층문화를 요서지역, 장성 이북지역, 발해만 북부 일대에 분포하는 요서유형과 장성 이남의 경진지구(京津地區)에 분포하는 연산형(燕山型)으로 구분하였고, 해당 문화를 조기(早期)와 만기(晚期)의 두 시기로 나누었다.<sup>19)</sup> 그러나 각 시기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같은 해, 리징한[李經漢]은 하가점하층문화를 경진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남유형(燕南類型)과 적봉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북유형(燕北類型)으로 구분하고, 해당 문화를 조기, 중기, 만기의 세 시기로 나누는 분기 의견을 제시하였다.<sup>20)</sup> 그러나 당시 중국의 고고학계가 더 늦은 시기의 유적인 위방(圍坊)유적과, 장가원(張家園) 상층유적 또한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이경한 역시 두 유적을 하가점하층문화로 귀속시켜 보았다. 때문에 리징한의 분기 의견 역시 조기와 만기의 두 시기로 나눈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조기의 특징으로, 대부분의 토기에 용산문화의 특징이 명확히 나타나며, 절복분(折腹盆)<sup>21)</sup>과 일련의 문화 인소가 새롭게 출현한다고 보았다. 만기에는 협사회도(夾砂灰陶)와 협사홍갈도(夾砂紅褐陶)의 수량이 가장 많으며, 절복소구관(折腹小口罐), 평저분(平底盆), 부가퇴문(附加堆紋)이 있는 용(瓮)과 언 등의 유물 특징이 중원지역 이리두문화 토기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하가점하층문화의 연대 상한이 중원의 용산문화 만기에 상당하며, 하한은 중원의 이리두문화와 이리강문화 시기로 보았다.<sup>22)</sup>

1981년 리공두[李恭篤]와 까오메이쉬엔[高美璿]은 하가점하층문화를 네

18) 遼寧省文物幹部培訓班, 『遼寧北票縣豊下遺址1972春發掘簡報』, 『考古』, 1976, 제3기, 197~210쪽.  
19) 鄒衡, 『關於夏商時期北方地區諸鄰境文化的初步探討』,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1980, 253~293쪽.

20) 李經漢, 『試論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和類型』, 『中國考古學會第一次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0, 163~170쪽.

21) 현재는 존(尊)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2) 陳平, 『夏家店下層文化研究綜述』, 『北京文物與考古』, 2002, 101~102쪽.

시기로 나누고, 연북지역에 위치한 유존을 제1기, 제2기, 제3기로, 연남지역에 위치한 유존을 제4기로 구분 지으면서, 시기별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1기의 일부 유물은 설산3기문화 유적 중 발견되는 유물과 유사하며, 제2기의 토기 제작법이 중원 이리두문화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제3기의 연대는 조상(早商)시기에 상당하며, 채회도 상에 그려진 문양이 중원 상대 청동기에서 발견되는 문양과 밀접한 연원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제4기의 연대는 상말주초(商末周初) 시기에 해당하며, 대타두유적이 대표적이라고 하였다.<sup>23)</sup>

귀다순(郭大順)은 1985년과 1986년에 발표한 두 논문에서 풍하유적을 세 시기로 나누고, 이를 기초로 전체 하가점하층문화를 3기(期) 5단(段)으로 나누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풍하1기 유존을 제1기의 만단(晩段)으로, 풍하1기 유존보다 앞서는 유존들을 제1기의 조단(早段)으로 분류하였다. 제2기는 퇴적층이 매우 두터워 그 존속 시간이 비교적 길 것으로 보고 풍하2기 유존과 그에 상당하는 기타 유존들을 포함시켰다. 제3기는 풍하3기 유존을 제3기 조단으로, 연남지역에서 발견된 일련의 유존들을 풍하3기 유존보다 늦다고 여겨 제3기 만단으로 분류하였다.<sup>24)</sup>

장중페이(張忠培) 등 4인은 하가점하층문화를 두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서랍목륜하(西拉木倫河) 유역과 요서 연해(沿海)의 여러 하천을 포함하는 서요하수계구(西遼河水系區)이며, 다른 하나는 영정하(永定河) 이북의 조백하(潮白河)와 계운하(薊運河)를 포괄하는 해하북계구(海河北系區)이다. 그들은 전체 하가점하층문화에 대한 명확한 분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각 유형에 대한 분단과 분기 연구를 하였고, 해하북계구를 세 개의 시기로, 서요하수계구를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sup>25)</sup>

1988년 우평(吳鵬)은 하가점하층문화를 조기, 중기, 만기의 세 시기로 구

23) 李恭篤, 高美瑋, 『夏家店下層文化分期探索』, 『遼寧省考古, 博物館學會成立大會會刊』, 1981, 71~75쪽.

24) 郭大順, 『西遼河流域青銅文化研究的進展』, 『中國考古學會第四次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5, 185~195쪽; 郭大順, 『豐下遺址陶器分期再認識』, 『文物與考古論集』, 文物出版社, 1986, 78~92쪽.

25) 張忠培等, 『夏家店下層文化研究』, 『考古學文化論集(一)』, 文物出版社, 1987, 58~78쪽.

분하였는데,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토기와 함께 주거지의 변화상도 제시하였다. 조기의 주거지는 원형과 방형의 반지혈식(半地穴式)이며, 중기 역시 원형의 반지혈식 주거지가 주를 이루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기 주거지의 혈벽에는 돌이나 흙벽돌을 쌓은 형식이 나타나, 건축 형식상에 큰 변화가 보이며, 지면식(地面式) 주거지가 출현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만기에도 원형이나 방형의 반지혈식이 많이 보이지만, 주거지 내부 담장을 흙벽돌로 쌓고, 외부 담장을 돌로 쌓은 형식이 유행한다고 하였다.<sup>26)</sup>

1990년 리보치엔(李伯謙)은 지역의 문화 차이에 따라, 하가점하층문화를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풍하, 약왕묘(藥王廟), 지주산, 남산근(南山根)유적을 대표로하는 약왕묘유형, 두 번째는 경진지구의 대타두, 장가원, 동점장(東店莊), 위장(圍場)유적을 대표로하는 대타두유형, 세 번째는 계현(薊縣) 일대를 대표로하는 호류하유형(壺流河類型)이다. 또한 그는 전체 하가점하층문화를 3기 5단으로 나누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제1기에 약왕묘유형의 제1단과 대타두유형 제1단 유존을 포함시켰으며, 연대는 하대 조기의 약간 늦은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제2기에는 약왕묘유형의 제2단과 제3단, 대타두유형의 제2단과 제3단 그리고 호류하유형 제1단과 제2단이 포함되며, 연대는 하대 만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제3기는 약왕묘유형의 제4단과 제5단, 대타두유형의 제4단과 제5단 그리고 호류하유형의 제3단이 포함되며, 그 연대는 상대 전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sup>27)</sup>

리징한이 하가점하층문화의 분기와유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이후, 대부분의 학자들은 퇴적층이 풍부한 풍하유적을 기초자료로 삼아 자신들의 분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세부적으로 분류한 연구는 귀다순과 리보치엔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두 연구자 모두 하가점하층문화를 3기 5단으로 구분하였고, 매 단에 포함시킨 유존의 특징 역시 대체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6) 吳鵬, 『試論燕北地區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 『華夏考古』, 1988, 제4기, 78~86쪽.

27) 李伯謙, 『論夏家店下層文化』, 『紀念北京大學考古學專業三十周年論文集1952~1982』, 文物出版社, 1990, 150~170쪽; 李伯謙, 『中國青銅文化結構體系研究』, 科學出版社, 1998, 124~142쪽.

하가점하층문화의 연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소하연문화보다 늦으며, 하가점상층문화, 위영자문화보다는 이르다는데 이견이 없다. 즉 중원지역의 하대(夏代)와 조상(早商)시기(BC2000~BC1400년)에 상당한다.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해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귀다순은 요서지역에 독립적인 용산문화 단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중원의 용산문화와 하가점하층문화의 이른 단계가 동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28)</sup> 리우관민과 왕리신 역시 하가점하층문화의 초기 유존에 용산문화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상한을 용산문화 만기까지 끌어 올려 보고자 하였다.<sup>29)</sup> 쉬광지와 쯤옌핑은 요서 남부의 하가점하층문화는 BC140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였고, 후일 연(燕) 문화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30)</sup>

필자 역시 하가점하층문화의 연대가 BC2000~BC1400년이라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 하지만, 하가점하층문화의 초기 유적에서 마광혹도 등의 용산문화적 요소를 가진 유물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점, 요서지역이 BC2500년경에 이미 인류 생존에 적합한 환경<sup>31)</sup>이 만들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가점하층문화의 연대 상한을 용산문화 만기 단계까지 올려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유형과 분포범위에 관한 논의

하가점하층문화가 정식으로 명명되고, 그 성질과 면모가 구체적으로 확인

28) 郭大順, 『西遼河流域青銅文化研究的進展』, 『中國考古學會第四次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5, 185~195쪽; 郭大順, 『豐下遺址陶器分期再認識』, 『文物與考古論集』, 文物出版社, 1986, 78~92쪽.

29) 劉觀民, 徐光冀, 『內蒙古東部地區青銅時代的兩種文化』, 『內蒙古文物考古』, 1981; 王立新等, 『夏家店下層文化淵源芻論』, 『北方文物』, 1993, 제2기, 5~16쪽; 王立新, 卜筮大, 『對夏家店下層文化源流及與其他文化關係的再認識』, 『青果集——吉林大學考古系建系十周紀念文集』, 知識出版社, 1998, 179~187쪽.

30) 徐光冀, 朱延平, 『遼西區古文化(新石器至青銅時代)綜論』, 『蘇秉琦與當代中國考古學』, 科學出版社, 2001, 86~96쪽.

31) WeiMingJia, "TransitionfromforagingtoFarminginNortheastChina", Ph.D.dissertation, University of Sydney, 2005

된 후, 동일한 성격을 지닌 유적들의 발견이 연이어 이어졌다. 연산 이북지역에서는 내몽고 적봉시 영금하 유역의 석성군, 지주산(蜘蛛山), 녕성현(寧城縣) 소유수림자(小榆樹林子), 남산근(南山根)유적 등이 발견되었으며, 하북성(河北省) 승덕(承德), 당산(唐山) 소관장(小官莊), 북경(北京) 창



[그림 2] 연북유형과 연남유형의 위치도

평(昌平) 설산(雪山) 그리고 천진(天津) 대창(大廠) 대타두(大坨頭) 등의 연산 이남지역에서도 연북지역 하가점하층문화의 토기와 비슷한 성질의 토기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중국 내의 학자들로 하여금 하가점하층문화가 요서지역 뿐 아니라, 연산 이남지역까지 그 세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그림 2).<sup>32)</sup>

실제로 본장의 1절에서 언급한 하가점하층문화의 분기와 연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요서의 연북유형과 경진지구의 연남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분포 범위가 이미 경진지구까지 확대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각 유적의 층위관계를 고려해 하가점하층문화의 연남유형을 해당문화의 만기 단계로 귀속시키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고고학 자료가 누적되면서, 하가점하층문화의 분포범위와 그 문화적 요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

두 가지유형 간에는 렉(鬲)과 언(甗) 등의 삼족기가 실용기로서 많이 발견되는 등 공통적 문화 요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렉과 언의 기형에 관한 연구가 세분화 되면서 두 지역에서 출토되는 렉과 언이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무덤과 주거지의 양식에서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연북

32) 郭大順, 張星德, 앞의 책, 293쪽.

유형의 무덤은 일반적으로 토갱수혈묘(土坑豎穴墓)에 나무 장구(葬具)나 흙벽돌 장구가 설치되어 있고, 시신의 매장 형태는 측신직지장(側身直肢葬) 위주이며, 두향(頭向)은 서북 방향이 많다. 부장품은 시신의 다리 끝 혹은 다리 끝에 설치된 벽감(壁龕) 내에서 발견된다. 이에 반해 연남유형의 무덤은 석관묘(石棺墓)가 많이 발견되었고, 시신의 매장 형태는 양신직지장(仰身直肢葬)에 두향은 동서 방향이 많이 발견되었다. 부장품은 시신의 머리 부근에 놓인 것이 많다(그림 3). 양자의 주거지를 살펴보면, 연북지역의 주거지는 돌이나 흙벽돌을 이용해 쌓은 원형의 지면식 주거지가 많이 발견되지만, 오히려 시기가 늦은 연남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하가점하층문화의 연남유형을 독립적인 고고학문화로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림 3] 연남유형과 연북유형의 무덤 비교  
(安志敏, 1954; 中國考古研究所考古研究所, 1998)

1981년 한자구[韓嘉谷]는 경진지역에서 하가점하층문화 요소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던 전통적 문화 인소가 여전히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해당 지역의 유존들이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92년에는 “연남유형”을 하가점하층문화로부터 분리시켜 대타두문화로 명명하였다.<sup>33)</sup>



1989년 부굉[卜工]은 연산지역 하상시기의 도령(陶甕)연구를 통해 연산 이남지역이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34)</sup>

1993년 왕리신[王立新] 등은 연산남북지역에서 발견된 유존의 차이에 근거해, 하가점하층문화를 연산이북의 서요하 수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하가점하층문화의 유형분류 및 분포범위에 대한 연구는 연남지역의 유존이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초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남지역에서 발견된 관련 유존을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한가곡의 연구 이후, 소위 “연남유형”을 경진지구의 독립적인 고고학문화로 보는 의견이 점점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sup>35)</sup>

필자 역시 이상의 관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두 유형에서 모두 력과 언과 같은 삼족기가 출토되었지만, 연북유형에서는 기형이 비교적 길고 직선인 통복력이 유행하였고, 연남유형에서는 기형이 짧고 볼록한 고복력이 유행한 점, 시기적으로 늦은 연남유형에서 시기적으로 앞선 연북유형의 건축형태(돌이나 흙벽돌을 이용한 건축물)가 일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두 유형이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다른 두 문화로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 3) 연원에 관한 연구

앞에서 살펴본 분기, 연대 및 유형에 관한 문제 외에도, 하가점하층문화의 연원을 찾는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1962년 쟡샤오종[鄭紹宗]은 하가점하층

33) 韓嘉毅, 「京津地區商周時期古文化發展的一點線索」, 『中國考古學會第三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1, 220~229쪽; 韓嘉毅, 「大坨頭文化陶器群淺析」, 『中國考古學會第七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92, 294~306쪽.

34) 卜工, 「燕山地區夏商時期的陶甕譜系」: 『北方文物』, 1989, 제2기, 30~38쪽.

35) 楊建華, 「試論夏商時期燕山以南地區的文化格局」, 『北方文物』, 1999, 제3기, 1~9쪽; 紀烈敏, 「燕山南麓青銅文化的類型譜系及其演變」, 『邊疆考古研究』, 科學出版社, 2002, 제1집, 116~135쪽; 林云, 「中國北方長城地帶遊牧文化帶的形成」, 『燕京學報』, 北京大學出版社, 2003, 제14기, 95~146쪽; 王立新, 「遼西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的演進」, 『考古學報』, 2004, 제3기, 243~270쪽; 蔣剛, 「冀西北, 京津唐地區夏商西周北方青銅文化的演進」, 『考古學報』, 2010, 제3기, 455~480쪽.

문화를 중원 상 문화의 북방 변종으로 보았다.<sup>36)</sup>

1964년 샤나이[夏鼐]는 하가점하층문화가 중원문화권과 관련이 있으며, 중원지역의 만기 용산문화의 변종일 것으로 생각하였다.<sup>37)</sup>

1973년 루쥘원[魯作文]은 하가점하층문화가 주로 황하 중하류의 문화와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연복유형이 발전하여 하가점상층문화가 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1977년 리쑹두는 오한기 소하연에서 발견된 유적을 근거로, 하가점하층문화는 홍산문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홍산문화-소하연문화-하가점하층문화로 이어지는 문화의 발전 서열을 제시하였다.<sup>38)</sup>

1980년 리징한은 하가점하층문화 초기단계의 유존에 용산문화적 요소가 발견되기 때문에, 지방적 특색을 가진 중원 계통의 문화이며, 그 기원을 용산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sup>39)</sup>

같은 해에 저우형은 하가점하층문화에서 발견되는 적지 않은 문화 요소들이 하북지역의 용산문화를 계승한 것이며, 그 중 대부분은 상 문화를 일부는 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sup>40)</sup>

1984년 리쑹두와 까오메이쉬엔은 하가점하층문화의 연원을 홍산문화에서 찾으면서, 홍산문화와 소하연문화에서 연속해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sup>41)</sup>

1986년 귀디순은 하가점하층문화의 연원이 요서지역 홍산문화와 홍산문화에 상당하는 여러 문화유형과 직접 관계가 있으며, 하가점하층문화 풍허유형의 만기단계에는 위영자유형과의 계승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sup>42)</sup>

1987년 허시엔우[何賢武]는 하가점하층문화가 요서지역 홍산문화와 소하연문화를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주변지역의 문화를 흡수하여 발전해

36) 鄭紹宗, 「有關河北長城區域原始文化類型的討論」, 『考古』, 1962, 제12기, 658~671쪽.

37) 夏鼐, 「我國近十五的考古新收穫」, 『考古』, 1964, 제10기, 485~497쪽.

38) 魯作文, 「關於夏家店上層和下層文化的幾個問題」, 『文物』, 1973, 제2기, 44~45쪽.

39) 李經漢, 앞의 논문, 163~170쪽.

40) 鄒衡, 「河北龍山文化雪山型與夏家店下層文化」,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1980, 253~293쪽.

41) 李恭篤, 高美濤, 「夏家店下層文化若干問題研究」, 『遼寧大學學報』, 1984, 제5기.

42) 郭大順, 「豐下遺址陶器分期在認識」, 『文物與考古論集』, 文物出版社, 1986, 78~92쪽.

나갔다고 하였다.<sup>43)</sup>

1997년 텐광진[田廣金]은 하가점하층문화의 석성취락유적의 형태와 건축 방법이 내몽고 중남부의 노호산문화(老虎山文化)의 석성 취락군과 유사하다고 여겼으며, 하가점하층문화의 형성은 노호산문화가 동진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sup>44)</sup>

1998년 텐광진과 귀쑤신[郭素新]은 위영자유형이 하가점하층문화 만기 문화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기타 외래문화 인소를 흡수한 결과, 새로운 문화유형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sup>45)</sup>

1998년 왕리신과 복기대는 하가점하층문화가 매우 개방적 문화 체계를 가졌으며, 북으로는 남시베리아, 남으로는 황하 중하류 유역의 동시기 고고학 문화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sup>46)</sup>

2001년 쉬광지와 쑤옌핑[朱延平]은 요서지역 남부의 하가점하층문화가 같은 지역의 신석기문화를 계승, 발전 시켰으며, 후일 연(燕)문화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하가점하층문화의 기원에 관한 이상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갈래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하가점하층문화의 기원을 중원의 하·상문화에서 찾으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기원을 요서지역의 신석기문화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기원을 내몽고 중남부 지역의 노호산문화와 연결시키고 있다.

연구의 시간적 흐름에서 보자면 하가점하층문화가 발견된 초기에는 요서 지역의 고고학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원을 중원지역의 하·상문화와 연결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요서지역의 후기 신석기문화들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고 자료가 축적되면서 하가점하층문화가 요서지역

43) 何賢武, 「試論遼西地區古代文化的發展」, 『中國考古學六次會討論文集』, 文物出版社, 1987, 38~49쪽.

44) 田廣金, 「論內蒙古中南部史前考古」, 『考古學報』, 1997, 제2기, 121~1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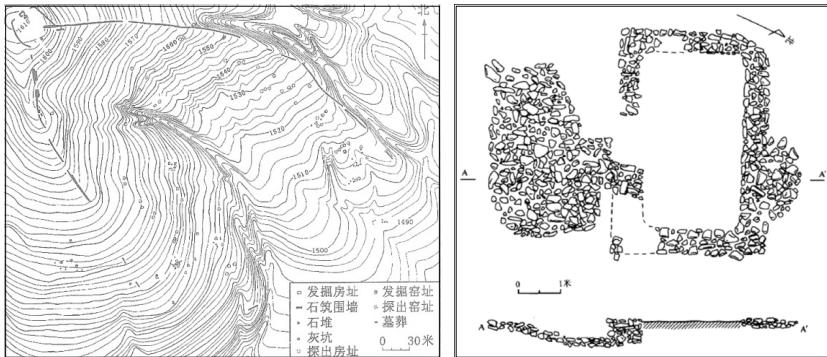
45) 田廣金, 郭素新, 「中國北方畜牧—遊牧民族的形成與發展」, 『中國商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8, 310~322쪽.

46) 王立新, 卜冀大, 앞의 논문, 179~187쪽.

47) 徐光冀, 朱延平, 앞의 논문, 86~96쪽.

의 후기 신석기문화를 계승·발전시켰다는 의견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의견과는 달리 하가점하층문화의 석성취락과 내몽고 중남부 대해(垓海) 지역에서 발견된 노호산문화의 석성취락(그림 4)을 연결시킨 텐광진의 의견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이 의견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아직까지 석성취락이라는 문화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경로를 통해 전파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문화의 연대 관계,<sup>48)</sup> 양자의 석성취락과 주거지의 형태적 특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 문화의 연관성을 추측할만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은 이후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노호산유적의 평면도(좌)와 F33 평면도(우)  
(許宏, 2017)

#### 4) 취락 및 사회구조에 관한 연구

하가점하층문화의 분기와 연대, 분포범위 및 연원 등의 기초적 연구와 더불어, 연구자들의 인식은 계속해서 심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하가

48) 노호산문화의 연대 상한은 대체로 BC2500년으로 알려져 있다.

점하층문화의 취락형태 및 사회구조 방면의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95년 쑤옌핑은 취락군의 분포와 배치에 의거해, 하가점하층문화가 처한 사회 발전 단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적어도 연산 이북의 하가점하층문화는 통일된 지역적 국가를 형성했을 것이며, 그 형태는 국가의 원시단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2001년 왕웨이더[王惠德]는 요서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 석성의 원류, 유형, 입지, 분포 규율, 건축 풍격 등에 대해 분석한 후, 하가점하층문화 석성이 명확한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점 외에도, 사회의 등급 차이를 반영하는 사회 정치적 의미 또한 가진다고 하면서, 하가점하층문화의 석성을 방국(方國) 정치가 체현된 것으로 생각하였다.<sup>50)</sup>

2005년 귀다순과 장성더[張星德]는 하가점하층문화가 조기에 대량의 용산 문화 요소를 받아들였지만, 동북지역 전통의 특색을 간직한 독립적인 문화이며, 취락군과 묘지에 엄격한 등급 차이가 반영된 사회구조가 나타난다고 여겼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연쇄식 석성보군(石城堡群)의 규모, 방향 그리고 그 방어적 기능으로 볼 때, 하가점하층문화가 서요하 유역에서 웅거한 하왕조에 필적하는 강대한 방국이었음을 주장하였다.<sup>51)</sup>

2007년 텐광린[田廣林]은 새롭게 발견된 취락 고고자료와 관련 문헌자료를 결합하여 하가점하층문화 사회 및 정치형태에 대해 재검토 한 후, 하가점하층문화 사회구조에 대해 아래의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① 사회 내부에 등급제도가 보편적으로 존재함, ② 개체 소가정이 출현함, ③ 사유관념이 탄생할 조건을 갖추고 있음, ④ 사회 충돌이 심화됨, ⑤ 예제(禮際)의식의 중심이 신권(神權)에서 군권(軍權)으로 넘어감.<sup>52)</sup>

2008년 시용제[席永杰] 등은 요서지역에서 발견된 선사 고고학문화에 대

49) 朱延平, 「夏家店下層文化的社會發展階段」, 『中國北方古代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文史出版社, 1995; 烏恩嶽斯圖,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青銅時代至早期鐵器時代」, 科學出版社, 2007, 5쪽.

50) 王惠德, 『夏家店下層文化石城研究』, 國際華文出版社, 2001.

51) 郭大順, 張星德, 앞의 책, 291~384쪽.

52) 田廣林, 「夏家店下層文化時期西遼河地區的社會發展形態」, 『考古』, 2006, 제3기, 45~52쪽.

해 분석한 후, 하가점하층문화가 적어도 4000~3500년 전에 요서지역에서 통일된 지역성(地域性)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지역 범위와 방위 체계의 규모를 보아 이러한 국가는 이미 국가의 맹아 단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였다.<sup>53)</sup>

2010년 쉬자오핑[徐昭峰]은 하가점하층문화 석성을 정리하는 한편, 하가점하층문화 석성의 유형과 그 용도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그는 하가점하층문화의 석성군이 연진한(燕秦漢) 장성과 기능이 다르며, 하가점하층문화의 석성군이 중심구역을 보호하는 강한 군사 색채를 지닌 방어대라고 하였다.<sup>54)</sup>

2015년 리우통[刘潼], 윈커쉘[温科学]는 하가점하층문화 취락의 공간배치와 사회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해당 문화의 취락 수량과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취락은 촌락에서 도시로 발전해 나갔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중심취락을 형성하기도 했다고 보았다.<sup>55)</sup>

2016년 루츠핑[盧治萍]은 하가점하층문화 석성취락이 취락조(聚落組) - 취락군(聚落群) - 상위취락군(超級聚落群) - 취락구(聚落區)의 네 가지 등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가점하층문화 석성취락이 보편적 의미의 “도시”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취락간에는 일정한 등급차이가 존재하지만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리두문화가 초기 중국의 중심이며, 하가점하층문화는 방국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sup>56)</sup>

이상의 취락 및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하가점하층문화를 방국의 지위에 놓고 있는 점이다. 현재 중국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국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 쑤빙치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그는 방국을 ‘비교적 성숙하고 발달한 고급 국가’라는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여 정의하였다. 방국이라는 개념이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보완되고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특징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또한 방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있기 때문에 방국이라는 용어

53) 席永傑, 王惠德, 孫永剛等: 『西遼河流域早期青銅文明』, 內蒙古人民出版社, 2008.

54) 徐昭峰, 『試論夏家店下層文化石城』, 『中原文物』, 2010, 제3기, 40~45쪽.

55) 劉潼, 溫科學, 『夏家店下層文化聚落研究』, 『北方民族考古』, 2015, 제2집, 123~141쪽.

56) 盧治萍, 『夏家店下層文化石城聚落研究』, 『文化遺產與公眾考古』, 2016, 제3집, 66~86쪽.

의 사용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국이라는 용어는, 고국(古國)이라는 용어와 함께 중국학자들이 중국 내의 고대문화를 설명하는데 비교적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 및 다른 지역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하가점하층문화의 사회발전단계 및 국가진입에 관한 논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국이라는 중국적인 개념으로 분석하기보다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 4. 하가점하층문화 연구의 문제점

이상의 중국 내 하가점하층문화 연구는 문화의 연대, 분포범위 연구와 더불어, 사회 형태 및 국가 기원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역시 나타났는데, 그중 여기서는 연구대상의 편향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식적인 고고학 조사를 거쳐 시굴 혹은 발굴된 유적은 내몽고 적봉시의 하가점, 약왕묘, 지주산, 사분지 동산저, 점장대, 수지향 대남구, 연태산, 삼좌점, 상기방영자, 서량, 강가만, 이도정자, 오한기 탑산남, 대전자, 범방자, 홍룡구 제3지점, 녕성현 소유수림자, 남산근, 삼좌점, 객라십기 대산전, 통료시 나만기 소동구, 고륜기 호금고, 요녕성 북표시 풍하, 강가둔, 서대천, 개자정, 조양시 열전장, 북태자, 라과지, 상하수, 와룡산, 마영자, 룡원시 소장자, 우하량 제16지점(삼관전자 성자산), 건평현 객라십하동, 수천, 부신시 평정산, 대해, 계력화, 객좌현 하삼가, 부몽현 오포지, 서회동, 동수천, 북구, 서소산, 흥성시 선령사, 마권자, 망보산, 광량, 룡해시 대마구자남산, 대산, 서대립자, 의현 향양령 등 53곳이다.

이상의 유적 중 21곳은 적봉시, 오한기, 녕성현 등을 중심으로 한 노로아호산 이서지역에서 조사된 유적이며, 나머지 22곳은 조양시, 북표시, 부신시 등을 중심으로 한 노로아호산 이동지역에서 조사된 유적이다. 하지만 지금까

지 이루어진 분기, 유형, 사회형태에 관한 연구들은 두 지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적봉 지역과 그 일대의 한두 지구 혹은 두세 유적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체 하가점하층문화의 문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1960년부터 90년대까지 이루어진 적봉 서부 지역의 여러 하천 부근에서 이루어진 지표조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가점하층문화의 분포범위는 매우 넓은데 반해 그간 시·발굴된 유적의 분포는 산발적이었다. 때문에 발굴된 유적들 사이의 관계나 하가점하층문화의 사회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로아호산 이서의 내몽고 적봉지역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유적들을 포괄하는 지표조사들이 수차례 진행되었고, 분포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석성군(石城群)이 발견되면서 하가점하층문화 취락의 기능, 사회구조 등에 대한 연구를 용이하게 하였다.

해당 지역의 석성군 조사와 연구가 지금도 하가점하층문화의 다양한 고고학적 연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곳의 연구를 하가점하층문화 전체의 연구 결과로 확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은 하가점하층문화의 분포 범위 중에서도 서북쪽에 치우친 곳이며(그림 5), 유적이 위치한 곳의 자연환경 또한 노로아호산 이동 지역 유적들이 위치한 곳과는 차이가 있다.

노로아호산 이서지역은 평균 해발이 약 500m 이상이며, 이동지역은 200m 이하로, 두 지역에서 발견되는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의 입지나 사람들의 생활상은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 특히나 적봉 서부지역에서 발견된 석성 유적들은 평균적으로 해발 700m 이상인 곳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적봉지역 음하 유역의 석성군에 포함되는 유적들은 말 그대로 돌을 이용해 유적의 외곽이나 주거지 벽체를 두른 경우가 많이 발견되지만 적봉지역에서 해발이 비교적 낮은 지역과 노로아호산 이동 지역의 유적들은 흙이나 흙벽돌을 이용하여 성의 외곽이나 주거지 벽체를 두른 경우가 많이 보인다.

위의 문제점과 관련해 [표 1]을 참고하면, 현재 노로아호산 이서지역에서는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모두 6곳의 유적이 발굴되었으며, 이동지역에서



는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모두 14곳의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처럼 노로아 호산 이동지역의 유적이 많이 발굴되고, 일부 유적이 간보로 정리되기도 하였지만, 새롭게 발굴된 유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하가점하층문화의 모든 유적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발견된 하가점하층문화의 유적이 5200여 곳에 이르고 발굴된 유적 또한 53곳이 된 다지만, 정식 발굴보고서가 발간된 유적은 대전자묘지, 상기방영자 및 서량 유적, 우하량 제16지점(삼관전자 성자산) 등 네 곳뿐이기<sup>57)</sup> 때문에 유적의 평면도나 유구 배치도를 얻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발굴된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보고서의 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굴보고서의 신속한 발간은 현재 중국 고고학계에서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필자는 현재 발표된 자료를 활용하여 하가점하층문화 전체 범위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취락고고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시적인 관점에서 토기나 석기와 같은 개별 유물을 분석해 지역 간 비교를 하고 유형을 분석하며, 하가점하층문화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일 또한 매우 의미 있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유적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더 시급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하가점하층문화의 유적들은 대부분 취락유적으로, 지금까지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내몽고 적봉 지역을 비롯하여 요녕성 조양, 북표, 부신, 홍성 등 지역에 분포한 취락의 입지, 배치 특징, 취락 규모 차이에 따른 유적 간 관계 등을 연구한다면, 하가점하층문화 사회에 대한 풍부한 연구 결과를 얻는 동시에, 연구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완전한 의미의 하가점하층문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57) 朴眞浩, 『夏家店下層文化聚落, 經濟與社會形態研究』, 中國社會科學院大學博士學位論文, 2020, 124~126쪽.



[그림 5] 하가점하층문화 분포범위와 음하, 반지전하 유역 위치도

## 5. 맺음말

이상으로 중국 내 하가점하층문화의 연구 현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하가점하층문화가 이름 지어진 이래로, 분기와 연대, 유형, 연원 등 방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하가점하층문화의 분기 의견 중, 귀다순과 리보치옌이 제기한 3기 5단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연대는 그 상한과 하한에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원지역의 하대 및 조상시기와 동시기에 발전한 문화로 여겨진다.

유형과 분포범위에 관해서는 연구초기 연산 이북지역의 연북유형과 연산 이남지역의 연남유형을 모두 하가점하층문화의 유존으로 인식하였지만, 1981년 한자구가 연산 이남지역의 문화 유존들을 하가점하층문화로부터 분리시켜 대타두문화로 명명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하가점하층문화의 연원문제는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원문화인 용산문화 및 하·상 문화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연구이

며, 두 번째는 요서지역의 전통적 요소를 계승했음을 강조하는 연구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가점하층문화가 요서지역의 신석기시대 특징을 계승하는 동시에, 주변 여러 지역의 외래 문화인소를 흡수하여 발전한 문화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고학문화를 정의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 외에도 취락, 사회, 경제, 국가 기원 등의 방면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하가점하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취락 및 사회 형태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하가점하층문화가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난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그 지위는 중원의 하왕조를 둘러싼 방국에 해당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중국 내 하가점하층문화 연구는 문화의 연대, 분포범위 연구와 더불어, 사회 형태 및 국가 기원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 역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연구 대상의 편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노로아호산을 경계로 그 서쪽의 내몽고 적봉시와 그 주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반면, 동쪽의 조양시, 북표시, 부신시 등에 위치한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두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을 모두 포괄한 연구 또한 거의 없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하가점하층문화를 비롯한 요서지역 선사문화를 연구하는 중국의 학자들 또한 조양, 북표, 부신, 홍성, 룡해 등지의 새롭게 발굴된 유적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들은 학자들이 하가점하층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그 연구 집중도가 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취락고고학적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가점하층문화의 유적들은 대부분 취락유적으로, 지금까지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내몽고 적봉 지역을 비롯하여 요녕성 조양, 북표, 부신, 홍성 등 지역에 분포한 취락의 입지, 배치 특징, 취락 규모 차이에 따른 유적 간 관계 등을 연구한다면, 연구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 하가점하층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노선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최근 들어 침체된 하가점하층문화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呂遵誥, 『內蒙古赤峰紅山後考古調查報告』, 『考古』, 1958, 제37기.
- 遼寧省文物幹部培訓班, 『遼寧北票縣豐下遺址1972春發掘簡報』, 『考古』, 1976, 제37기.
- 濱田耕作, 『貔子窩(東方考古學叢刊第一冊)』, 東亞考古學會, 1929.
- 濱田耕作, 水野清一, 『赤峰紅山後 - 熱河省赤峰紅山後先史遺址(東方考古學叢刊第六冊)』, 1938.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內蒙古赤峰藥王廟, 夏家店遺址試掘簡報』, 『考古』, 1961, 제27기.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大甸子 - 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1998.
- 郭大順, 張星德, 『東北文化與幽燕文明』, 江蘇教育出版社, 2004.
- 李伯謙, 『中國青銅文化結構體系研究』, 科學出版社, 1998.
- 席永傑, 王惠德, 孫永剛等: 『西遼河流域早期青銅文明』, 內蒙古人民出版社, 2008.
- 烏恩嶽斯圖,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 青銅時代至早期鐵器時代』, 科學出版社, 2007.
- 王惠德, 『夏家店下層文化石城研究』, 國際華文出版社, 2001.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考古學專刊 - 梁思永考古論文集』, 科學出版社, 1959.
- 郭大順, 『西遼河流域青銅文化研究的進展』, 『中國考古學會第四次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5.
- \_\_\_\_\_, 『豐下遺址陶器分期再認識』, 『文物與考古論集』, 文物出版社, 1986.
- 紀烈敏, 『燕山南麓青銅文化的類型譜系及其演變』, 『邊疆考古研究』 제1집, 科學出版社, 2002.
- 盧治萍, 『夏家店下層文化石城聚落研究』, 『文化遺產與公眾考古』 제3집, 2016.
- 李經漢, 『試論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和類型』, 『中國考古學會第一次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0.
- 魯作文, 『關於夏家店上層和下層文化的幾個問題』, 『文物』 제27기, 1973.
- 劉觀民, 徐光翼, 『內蒙古東部地區青銅時代的兩種文化』, 『內蒙古文物考古』, 1981.
- 劉 潼, 溫科學, 『夏家店下層文化聚落研究』, 『北方民族考古』 제2집, 2015.
- 李恭篤, 高美璿, 『夏家店下層文化分期探索』, 『遼寧省考古, 博物館學會成立大會會刊』, 1981.
- \_\_\_\_\_, 『夏家店下層文化若干問題研究』, 『遼寧大學學報』 제57기, 1984.
- 李伯謙, 『論夏家店下層文化』, 『紀念北京大學考古學專業三十周年論文集1952~1982』, 文物出版社, 1990.
- 林 云, 『中國北方長城地帶遊牧文化帶的形成』, 『燕京學報』, 北京大學出版社 제147기, 2003.
- 朴眞浩, 『夏家店下層文化聚落, 經濟與社會形態研究』, 中國社會科學院大學博士學位論文, 2020.
- 卜 工, 『燕山地區夏商時期的陶甬譜系』: 『北方文物』 제27기, 1989.
- 徐光翼, 朱延平, 『遼西區古文化(新石器至青銅時代)綜論』, 『蘇秉琦與當代中國考古學』, 科學出版社, 2001.
- 徐昭峰, 『試論夏家店下層文化石城』, 『中原文物』 제37기, 2010.
- 孫永剛, 趙志軍, 曹建恩等, 『內蒙古二道井子遺址2009年度浮選結果分析報告』, 『農業考古』 제67기, 2014.
- 安志敏, 『唐山石棺墓及其相關的遺物』, 『考古學報』 제7책, 1954.
- 楊建華, 『試論夏商時期燕山以南地區的文化格局』, 『北方文物』 제37기, 1999.
- 吳 鵬, 『試論燕北地區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 『華夏考古』 제47기, 1988.
- 王立新等, 『大山前遺址發掘資料所反映的夏家店下層文化的經濟形態與環境背景』, 『邊疆考古研究』 제6집, 2007.

- 王立新等, 『夏家店下層文化淵源芻論』, 『北方文物』 제2기, 1993.
- \_\_\_\_\_, 『遼西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的演進』, 『考古學報』 제3기, 2004.
- 王立新等, 卜箕大, 『對夏家店下層文化源流及與其他文化關係的再認識』, 『青果集——吉林大學考古系建系十周年紀念文集』, 知識出版社, 1998.
- 王增新, 『凌源青銅器群出土地點發現新石器時代遺址』, 『文物參考資料』 제3기, 1957.
- 張忠培等, 『夏家店下層文化研究』, 『考古學文化論集(一)』, 文物出版社, 1987.
- 田廣金, 『論內蒙古中南部史前考古』, 『考古學報』 제2기, 1997.
- 田廣金, 郭素新, 『中國北方畜牧——游牧民族的形成與發展』, 『中國商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8.
- 田廣林, 『中國北方西遼河地區的文明起源』,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 \_\_\_\_\_, 『夏家店下層文化時期西遼河地區的社會發展形態』, 『考古』 제3기, 2006.
- 鄭紹宗, 『有關河北長城區域原始文化類型的討論』, 『考古』 제12기, 1962.
- 朱延平, 『夏家店下層文化的社會發展階段』, 『中國北方古代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文史出版社, 1995.
- 朱永剛,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東北與北方青銅時代』, 文物出版社, 2016.
- 陳平, 『夏家店下層文化研究綜述』, 『北京文物與考古』, 2002.
- 鄒衡, 『關於夏商時期北方地區諸鄰境文化的初步探討』,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1980.
- \_\_\_\_\_, 『河北龍山文化雲山型與夏家店下層文化』,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1980.
- 佟柱臣, 『赤峰東八家石城址勘查記』, 『考古通訊』 제6기, 1957.
- 夏竦, 『我國近十五的考古新收獲』, 『考古』 제10기, 1964.
- 何賢武, 『試論夏家店下層文化的社會經濟與社會性質』, 『遼寧大學學報』 제2기, 1986.
- \_\_\_\_\_, 『試論遼西地區古代文化的發展』, 『中國考古學六次會討論文集』, 文物出版社, 1987.
- 韓嘉毅, 『京津地區商周時期古文化發展的一點線索』, 『中國考古學會第三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1.
- \_\_\_\_\_, 『大坨頭文化陶器群淺析』, 『中國考古學會第七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92.
- 許宏, 『先秦城邑考古』, 金城出版社、西苑出版社, 2017.
- WeimingJia, "Transition from foraging to Farming in Northeast Chin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ydney, 2005.

## 夏家店下层文化研究现况与相关问题

朴真浩\*

夏家店下层文化被正式命名,是从1960年内蒙古赤峰市夏家店遗址的发掘开始的。随着考古资料的积累,学者们就夏家店下层文化的类型,分期与年代,渊源等三大方面的问题进行了较为深入的研究和探索。学界一般认为,其年代为BC2000~BC1400年,大体相当于夏到早商时期。夏家店下层文化的分区研究,按照燕南地区是否属于该文化的分布范围,可分为两个看法。研究初期,许多研究者把燕南地区发现有夏家店下层文化因素的遗存包括在其研究范围内,但是韩嘉谷的研究以后,把所谓“燕南类型”视为在当地独立的一个考古学文化的意见逐渐得到了学界的认同。

在此基础上,研究者的认识也不断深化,又进行了夏家店下层文化的聚落,社会结构,社会发展阶段,经济形态及环境考古等方面的研究,在认识夏家店下层文化的社会形态和国家起源等问题取得了很大的成果。

笔者在本文中提出了在夏家店下层文化研究中产生的问题,代表有研究夏家店下层文化聚落时,大多学家不包括夏家店下层文化的广泛分布范围,只针对一两个地区或两三个遗址进行研究,这导致学界对以赤峰为中心的聚落了解较多,对其它地区的认识较少。为进一步深化对夏家店下层文化聚落的研究,笔者认为,有必要对目前已发现的夏家店下层文化的聚落遗址资料进行整理,并用聚落形态研究法对夏家店下层文化社会进行综合研究。

**关键词:** 辽西地区、夏家店下层文化、聚落考古

논문투고일: 2020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12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12일

---

\* 安养大学讲师